

2024. 5. 6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

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413-9558

시사편찬과장 박명호 413-9539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홈페이지 <http://history.seoul.go.kr>

조선시대 서울의 의례에는 어떤 음악이 흘렀을까?

서울역사편찬원, <조선시대 서울의 유교 의례와 음악> 발간

- 조선시대 서울 곳곳에서 행해진 유교 의례와 함께 연주된 음악의 역사성 규명
- 용비어천가부터 종묘제례악까지, 유교 의례 속 음악을 집중 조명한 연구 논문 수록
- 서울책방에서 구매 가능,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및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 열람도 가능

- 서울역사편찬원(원장 이상배)은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6권 《조선시대 서울의 유교 의례와 음악》을 발간했다. 이번 연구집은 조선시대 서울 곳곳에서 행해진 유교 의례와 그 속에서 연주된 음악들을 중점 연구한 6편의 논문을 수록했다.
 - <서울역사중점연구> 시리즈는 서울역사편찬원이 서울의 역사 중 아직 개척되지 않았거나 취약한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하여 편찬하는 발간물이다. 지난 2016년부터 발간하여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‘서울 역사 전문가’의 저변을 확대해오고 있다.
- 우선 강제훈(고려대 교수)의 <조선 초 제사·조회·연향 의례 정비와 음악의 적용>에서는 조선 초 유교 의례의 정비 과정에서 음악이 녹아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.

○ 조선은 건국 이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통치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다.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의 정치적·사상적 지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교 의례를 정비하는 것이었다. 이에 따라 새로운 유교 의례의 각 절차에 조선에서 재해석된 유교식 음악을 접목하여 조선의 유교 의례를 창출하였다.

□ 두 번째 논문인 임영선(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)의 <조선 초 의례 음악의 제정과 한양에서의 음악 연행>에서는 조선 초 정비된 의례 음악의 특징을 다루었다.

○ 조선은 고려 이래로 전승된 향악과 당악을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한편, 아악이 지닌 유교적 상징성과 문화적 함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의례 음악을 마련하였다. 종묘와 궁 안팎, 육조거리와 태평관, 왕의 행차 길에 이와 같은 신악(新樂)이 연주되며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통한 조선의 가치와 이상을 전달하였다.

□ 세 번째 논문은 박영재(고려대 박사수료)의 <조선 초 악장 노랫말의 성립 및 변전>으로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을 통해 그것이 담고 있는 유교적 역사와 시간 인식을 분석하였다.

○ 용비어천가는 이후 보태평과 정대업 등으로 그것의 악장 노랫말이 변화·계승되고, 제례악으로 연행되기 위한 규격을 갖추게 되었다. 그 결과 종묘 의례에서 연행된 이들 악장에 담긴 노랫말에는 선왕의 사적이 기록한 시간으로 노래되고, 의례가 펼쳐지는 종묘를 기록한 공간으로 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.

□ 네 번째, 이지훈(충남대 전임연구원)의 <조선 초 한양 문묘향사의 통사로서 위상과 예악 구성>에서는 한양에서 행해진 공자의 제사와 아악의 의례에 적용되는 과정을 다루었다.

○ 조선은 건국 이후 문묘(文廟)에 대한 제사를 국가적 차원의 제사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여 실행하였다. 문묘 제사의 예악은 한양에서 종묘와 사직에 버금갈 정도로 자주 설행(設行)됨으로써 한양의 문화적 환경 조성에 일조하였다.

* 문묘(文廟):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을 모신 사당

□ 다섯 번째로 정연주(고려대 박사수료)의 <조선 성종 초 한양의 의묘 공간 이동과 의례 변화>에서는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(덕종)에 대한 제사의 의례를 살펴보았다.

○ 성종 즉위 이후 ‘의경세자’는 1740년 의경왕으로, 1745년 덕종으로 추숭됨에 따라 새로운 신주 봉안과 의식 공간의 변화, 절차, 음악 등 대대적인 의례 정비가 뒤따랐다. 공간이 변화하며 설행되던 의례는 시각적·청각적 요소를 이용하여 위상을 보여주는 한편 국왕의 효성을 알림으로써 백성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였다.

□ 마지막 논문은 양정현(순천대 연구교수)의 <조선시대 국왕 사·관사례 의식의 예·악 구성과 공간적 특징>이다. 국왕이 참여하는 활쏘기 의례의 역사와 공간적 특징을 다루었다.

○ 군례(군사의례)이지만 국왕과 종친, 문무관원이 모두 참여하는 활쏘기 의례는 활쏘기와 연향이 통합된 의례이다. 관사 의식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시기별로 절차도 바뀌게 되며 경복궁 후원, 성균관 등지로 그 장소도 변화한다.

- 《조선시대 서울의 유교 의례와 음악》의 가격은 1만 원이다. 시민청 지하 1층 서울책방과 온라인책방(<https://store.seoul.go.kr>)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. 또한 《조선시대 서울의 유교 의례와 음악》을 비롯한 〈서울역사중점연구〉 시리즈는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과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(<https://history.seoul.go.kr>)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.

-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“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의례다. 이 책을 통해서 종묘 이외에도 서울의 곳곳에서 행해진 의례들에 주목해주기를 기대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더 좋은 〈서울역사중점연구〉 시리즈를 발간하도록 많은 연구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관련사진 각 1부(별첨)